

# 소리의 도시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영역의 소리를 탐색하며 만든  
김준의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는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소환한다.

보이지 않는 사회구조가 소리라는 매체를 통해 드러난다면 어떤 모습일까? 김준은 다양한 지역의 전자적 인 신호를 탐지하고 채집하며 그곳의 역사성을 시각화한다. 작가의 오디오 생태학에 대한 관심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베를린의 특정 영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자적인 신호(EMF)들에 흥미를 느낀 그는 전자기적인 파장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전시 제목인 '템페스트'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미약한 전자파를 이용하여 정보를 훔쳐내는 기술을 뜻한다. 한반도 암석지형을 수음(受音)한 소리와 채집한 이미지들을 담은 사운드박스, 전자기장(EMF)이 거대한 사운드미러에 끊임없이 반향을 일으키며 생성되는 파형 등을 담은 작업을 선보인다. 실재하지만 인지되지 않았던 영역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자리다. 아서스텐트 에디터/백세리

※ <템페스트>는 송은에서 12월 3일까지 열린다.



김준 작가의 <흔들리고 이동하는 조각들>(2022) 탁본 이미지.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and the Artist. All rights reserved.



토비아스 카스파, <L'Atelier(Trunkshows)>, 2022, Acrylic paint, pigment based ink, screen printing ink on canvas, 250×135cm. © Sebastian Schaub Courtesy the artist and Galerie Peter Kilchmann, Zurich

## TRUNK SHOW

퍼스널 쇼퍼와 예술가의 평행이론.

'퍼스널 쇼퍼'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전문적으로 쇼핑을 대행해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스위스 취리히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이자 미술 잡지 <Provence>의 편집자 토비아스 카스파는 퍼스널 쇼퍼가 예술가로서 자신의 역할과 닮아 있다고 느꼈다. 패션과 소비적 욕망의 코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시각적 언어로 작업에 담아낸다는 점이 그렇다. 그는 패션이야말로 사회의 변화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재빠르게 반응하며 동시대 개인의 정체성과 행동 양식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믿는다. 이번 전시는 그런 패션의 문법과 제작 방식을 예술가 고유의 언어로 변용한 보고(寶庫)다. 에디터/손안나

※ <Personal Shopper>는 파운드리 서울에서 12월 18일까지 열린다.